쓰나미 피해 1주기 추모법회 봉행

스리랑카 노동자 50여명 대구 관오사서

1월8일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노인요양시설 '여래원'에 화장지를 전달하고 있다.

1월 8일, 동남아시아 쓰나미(지진해일) 피해 발생 1주기를 맞아 대구지역 스리랑카 노동자 50여명이 대구 관오사(주지 지도)에서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산뜨스리, 소바나 스님의 집전으로 열린 추모법회는 스리랑카식으로 이어졌다.

50여명의 스리랑카 노동자중 지난해 쓰나미 피해로 가족을 잃은 노동자는 7명. 추모법회는 엄숙하고 진지하게 진행됐다. 염불의식과 스님의 법문이 끝나자 7명의 피해 노동자들은 빈 그릇에 물을 부으며 쓰나미로 희생된 가족들의 영혼이 이생에서의 죄를 씻고 맑게 떠올라 구제되기를 바라는 의식을 거행했다.

한국사찰 도움에 감사 용돈모아 여래원 전달

새해 처음 봉행된 외국인 노동자법회. 이날 법회는 새해 첫날 부모형제에게 인사를 하고 사찰을 찾아 스님에게 례를 올리는 이들 문화풍습에 따른 신년 법회를 겸했다. 법회가 끝나자 노동자들은 스님에게 다가가 절을 하고 다양한 생활상담도 하는 등 귀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법회에 참석한 스리랑카 노동자들은 한국사찰이 쓰나미 피해민 돕기에 나서고 1년동안 법회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데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 용돈을 모았다. 어려운 노동 환경 속에서 어렵게 모은 정성금은 치매노인 전문요양원에서 1년간 사용할 두루마리 휴지로 바뀌었다.

이날 스리랑카 노동자들은 사회복지법인 불교사회복지회(대표이사 지도) 산하 치매노인 전문요양시설인 여래원을 직접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폈다. 특히 이날 전달식에는 쓰나미 피해자 3명이 할머니들에게 직접 휴지를 전달하고 쓰나미 피해로 먼저 세상을 뜬 가족의 명복을 빌었다.

비록 말은 서로 통하지 않지만 노인치매전문요양원의 어르신들과 외국인노동자들 사이에는 순수한 교류의 끈이 이어졌다. 한국에 온지 불과 석 달밖에 안된 니르마라(24)양은 할머니 손을 잡고 마냥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는 친손녀에게 어리광이라도 부리는 듯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다"며 떼를 썼다.

글 · 사진=배지선 기자

영천 은해사, 얼음조각공원 조성

영천 은해사(주지 법타)는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경내 솔밭공원에 불교얼음조각공원을 조성한다. 매년 겨울 경내 은해교 옆 암벽에 얼음폭포를 조성해 온 은해사가 겨울철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계획한 것.

은해사는 불교얼음조각공원에 불상, 보살상 나한상 등 가로 세로 3m 규모의 불교를 소재로 한 얼음조각 작품 20여점을 설치하며, 이를 위해 1월 20일까지 불교얼음조각작품을 조각할 예술가들의 응모를 받고 있다. (054)335-3318 배지선 기자

불교포교 위한 교류협정 체결

경주 동국대 · 대구사원주지련…시설 · 교육환경 환용 등

대구사원주지연합회(회장 법혜)와 동국대 경주캠퍼스(부총장 고복현, 이하 경주동국대)는 1월 9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원효관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세에 포교하기 위해 시설과 교육환경을 환용 · 교류하는데 협력한다는 교류협정을 맺고, 대구불교회관에 동대 사회문화교육원 대구 학습관을 개설한다는데 합의했다(사진).

이에 따라 사원주지연합회는 올 1학기부터 대구불교회관에서 동국대 교수가 직접 강의하는 불교지도자과정과 불교풍수지리과정 등의 강좌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는 정규 석사과정인 특수대학원 개설도 고려중이며, 학점 은행제 등록기관으로의 인증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건학 100주년을 맞는 경주 동국대는 교류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조계종립대학으로서 포교역량을 경주지역뿐 아니라 대구지역까지 넓혀 나가게 됐다.

법혜 스님은 "동국대가 불자와 일반인들에게 다양한 교육환경을 열어줄 수 있도록 인적자원과 시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아픔 함께하고자 무료급식 제공"

해인사, 서문시장화재 피해상인 1000여명에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가 1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서문시장화재 피해상인 지원활동을 전개했다.

해인사 대구지역 신도회인 대구 화림회, 해인사 수련동문회, 해인사 의용소방대원들로 구성된 해인사 자원봉사단 30여명과 해인사 스님은 서문시장 주차 빌딩 앞에서 대체 상가 마련을 위해 연일 농성을 벌이고 있는 피해상인 약 1000여명에게 무료급식을 나눠줬다(사진).

해인사는 또 서문시장화재피해상인 돕기 모금함도 경내에 마련했다.

10일 무료급식에 참가한 해인사 포교국장 일감 스님은 "지난해 동남아 쓰나미 피해민을 돕기에 서문시장 상인들이 적극 동참해주었다"며 "지난해의 도움을 생각하며, 피해상인들과 조금이라도 아픔을 같이 하고자 무료급식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배지선 기자

동화사 대웅전 등 3건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추진

대구시는 동화사 대웅전 등 일부 대구시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추진하고 있다. 시지정문화재 중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신청함으로써 당해 문화재의 위상과 가치를 새롭게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국가지정문화재가 될 수 있는 주요지방문화재에 대한 자체조사와 전문가의 조사를 실시중이다. 현재 대구시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주목하고 있는 시지정문화재는 동화사 대웅전과 도동서원, 달성 하목정 등 3건이다. 대구시는 조만간 시문화재위원회를 거쳐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할 계획이다.

배지선 기자

대구시 성도절 기념법회 개최

불기 2549년 성도절을 맞아 대구광역시 성도절 기념대법회가 대구시민체육관에서 1500여명의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대구사원주지연합회(회장 법혜)의 주최로 봉행됐다.

대구사원주지연합회장 법혜, 대구불교방송사장 법조 스님, 김범일 대구정무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에서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은 이날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오직 분별한 생각을 내기 때문이다. 다만 미워하고 좋아하는 생각이 없다면 통연히 명백함이로다"는 법어를 내렸다.

한편 사원주지연합회는 성도절 법회 때 모금한 금액과 회원사찰 스님과 신도가 모금한 금액을 합한 500만원을 1월 10일 서문시장 피해상인에게 전달했다. 배지선 기자

지역불교 일구는 우바새

박진수

조계종 대구광역신도회 사무국장

대구 불교계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다보면 대구광역시 신도회 박진수 사무국장을 만나야한다는 공식이 성립된다. 평생을 불교활동으로 일관해 왔기에 대구불교 역사부터 야사까지 훤히 꿰고 있다는 게 지역불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그렇기에 박 국장에게는 '대구불교의 산증인'. '대구불교계의 마당발'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따라 붙는다.

현재 나이 58세. 대구가 고향인 박진수 사무국장은 어린시절 어린이법회부터 참가한 인물이다. 그러다 교계활동을 본격적으로 결심하게 된 것은 청소년 시절이다. 동화사 직할 포교당인 보현사 대구불교학생회원으로 활동한 박진수 사무국장은 주지 스님이 자주 교체되던 혼란한 시기의 보현사를 회고했다. 박국장은 혼란한 시기였기에 부처님의 법이 바르게 널리 홍포될 수 있도록 마음을 내며 활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러 단체 실무 맡아온 대구불교 산증인 앞에 나서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왕발'

대구지역불교 50년 역사와 함께 해온 박진수 사무국장에게 그동안 따라다닌 직함만도 여러개다. 1971년에는 원만사 학생회를 창립하고 지도교사로 활동했고, 76년에는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대구지부창립발기인중 한사람으로 봉사직인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번돈을 모두 쏟아부으며 청소년 불자를 키웠던 세월이 무려 10년이다.

1982년부터 3년간은 대구불교회관건립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을 맡았고, 83년에는 동화사 상임포교사로 임명됐다. 대구광역시신도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게 된 것은 86년부터다. 부실 운영으로 1000여 만원 이상의 빚을 떠안은 상태에서 원명, 무공, 경희, 운성, 태일 스님 등 지역 스님의 권유와 동의로 들어간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97년부터는 9교구신도회 사무국장도 겸하고 있다. 그 외 대한불교청년회대구지구 자문위원, 무료급식소 자비의집 사무국장도 겸하고 있다.

박국장은 한 평생 지역불교계의 중심에서 수많은 역할을 했지만 한 번도 전면에 나선적은 없다. 언제나 뒤에서 모든 일이 잘 이뤄지도록 실무를 담당했기 때문이다.

"원래 역사는 솟았다 내렸다 하는 거지 뭐. 봉우리도 만들고 골도 만들고…"

박진수 사무국장의 설렁 설렁 내뱉는 한마디에서 뭔지 모를 깊이를 느끼게 한다. 이제는 일선에서 물러나고도 싶을 터. 또 한번쯤은 전면에 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을 터인데 박진수 국장의 발걸음은 한결 같다. 누구보다 큰 키에 잰걸음으로 종횡무진 대구지역 불교계를 누비며 조용히 뒤를 받치고 있다.

오랜 경륜으로 지역불교역사를 꿰고 있는 박국장에게 물었다. 불교발전을 위한 조언을 한다면?

"요즘 불교복지를 많이 주장하는데 복지는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불교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집중 투자 해야 합니다. 또 어느 단체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바로 폐쇄해버리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은 어렵더라도 존속 발전시켜나가야지 먼 훗날 필요할 때 단체 하나를 육성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배지선 기자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한국불교의 동량을 가꾸고 배출하기 23년, 전통불교문화가 여러분의 얼과 숨결로 승화되는 곳, 동방불교대학이 새로운 法緣을 기다립니다.

학 과	교 육 내 용	모집인원	비 고
불교학과	불교의 교리 · 사상 · 역사와 경전, 종단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한 포교와 복지과목 등을 이수하고 기초불교의식을 배운다.	100명	2년제
승가학과	불교학의 기본교육과 주요 내전 및 종학 등 대승교화 종단의 위상을 담보하는 교과를 이수하고 기초불교 의식을 배운다.	100명	2년제
범패학과	불교학의 기본교육과 불교신행 및 사찰운영에 필요한 각종 재의식 등 전통불교의식의 이론 · 실기를 겸수한다.	50명	2년제
불교미술학과	불교학의 기본교육과 불화 · 단청을 비롯한 불교미술 전반의 체계적 학습을 위한 미술의 이론 · 실기를 겸수한다.	50명	3년제

구 분	일 자	장 소
원서교부 및 접수	2005. 12. 26(월)~ 2006. 2. 3(금) 17:00	본교 교학처 www.dongbang.org 인터넷 교부 · 접수
전형고사 (필기 · 실기 · 면접)	2006. 2. 10(금) 10:00~17:00	본교 강의실 및 실기실
합격자 발표	2006. 2. 13(월)	개별통지 본교 홈페이지 www.dongbang.org
합격자 등록	2006. 2. 13(월)~2.17(금)	계좌입금: 농협 029-01-130257 동방대

3. 지원자격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
가.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
나. 태고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4. 지원방법
가. 불교학과는 정규 및 통신반의 선택지원이 가능하다.
나. 승가학과 · 범패학과 · 불교미술학과는 정규반만 지원이 가능하다.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소정양식, 인터넷 원서접수한 후 출력하여 사진 부착) 1부
나.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마. 반명함판 사진 3매 바. 전형료 50,000원

◆제출방법
가. 본교 교학처 직접방문 및 우편 이용.
나. 인터넷 교부 · 접수는 원서접수한 후 출력하여 사진을 부착하고, 여타 제출서류를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교학처로 방문 제출한다.
다. 주소 : 136-823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330-586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학생과

구 분	필기고사 불교상식	실기고사	면 접	합 계
불교학과	60%(60점)	·	40%(40점)	100%(100점)
승가학과	60%(60점)	·	40%(40점)	100%(100점)
범패학과	30%(30점)	40%(40점)	30%(30점)	100%(100점)
불교미술학과	30%(30점)	40%(40점)	30%(30점)	100%(100점)

가. 태고종 승려로 출가득도하기 위해서는 향후 종단의 선교육 후득도 제도시행에 따라 본교(전체학과 해당)를 반드시 졸업해야 한다.
나. 불교학과 통신생은 본교 홈페이지 사이버 음원강의 및 통신강의CD를 통해 교육한다.
다.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
라. 승적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종단의 합동득도수계를 증명할 수 없는 지원자는 삭발여부를 불문하고 승복을 착용할 수 없다.
마. 승적증명서나 수계증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재가불자는 나머지 서류만 제출한다.
바. 전형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참석해야 한다.

가. 재학생 및 졸업생 중 출가희망자에게는 종단의 합동득도교육(태고총림 선암사에 입방하여 전통행자교육 및 승려의 습의를 수행함) 때 특혜를 부여한다.
나. 졸업생 전원에게 태고종단 2급 정포교사 자격증을 수여한다.
다. 졸업생 중 출가승려에게는 태고종 5년 법랍경력의 선덕(善德)법계를 품수한다.
라. 졸업생 중 재가승려(전법사)에게는 태고종 5년 법랍경력의 수교(修敎)법계를 품수한다.
마. 범패학과 졸업생에게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에서 수료증을 수여한다.
바. 불교미술학과는 각종 공모대전 참여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국가고시)을 대비하여 특강을 실시한다.
사.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혜택을 부여한다.

지방학생들의 교육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1982년 10월 18일 태고종립 불교포교사전문대학으로 개교.
1983년 6월 1일 동방불교대학으로 개명.
1990년 3월 1일 범패과 개설 및 기숙사 개설.
1991년 3월 1일 불교미술과 개설.
2004년 3월 1일 승가과 개설.
2005년 2월 28일 제22회 졸업식, 1,043명 졸업생 배출.
2005년 12월 20일 승가과 · 범패과 · 불교미술과를 승가학과 · 범패학과 · 불교미술학과로 공칭, 학과개념 부여 / 불교미술학과 2년제에서 3년제로 전환

문의처 :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136-823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330-586
☎ (02)745-2030~2 FAX (02)744-3461
홈페이지 www.dongbang.org